

현재 초6부터 고교학점제...수능 '논·서술형' 검토

학교 밖 교육도 수업 인정...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교육부, 올해 10월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발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가 되는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또한 이들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는 논·서술형 시험 도입도 검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은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형 대입제도 2024년 상반기 발표...“오지 선다형 수능 완전 폐지는 아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전국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데 있다. 교육부는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부분 도입되고, 2025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선 고교는 수업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1학점은 50분을 기준하고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정해졌다. 학생들은 3년간 192학점(2560시간)을 취득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학생들은 1학년 때 기본학력을 함양하는 공통과목을 듣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다. 아직 공통과목의 종류나 필수 이수 단위 학점 등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학교 단위에서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 인근 고등학교와 함께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학생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고려해 학교 밖 교육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대입제도의 대대적인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년인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미래형 대입제도 논의에 착수했다. 결과는 2024년 상반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초등 저학년 때부터 디지털 소양 학습...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도 추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태 전환 교육, 인공지능(AI)·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이 강화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배우는 기초소양에는 기존의 '3R'(읽기, 쓰기, 셈하기)뿐 아니라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도 포함된다.

시·도 교육청, 학교장의 선택과목을 활성화하고 교과목 시수 증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서책형 교과서 대신 온라인과 연계한 미래형 교과서 도입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모든 교과와 3~6학년 국어·도덕 교과는 국정 교과서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정 교과서는 교과별 편찬 준거를 정

비하고 심사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부교재 등으로 많이 활용되는 인정 교과서는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교사연구회를 운영해 개발한다.

학교나 교사에게 교과서 편찬·발행 등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도 추진한다.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초5~중 3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과목에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해 학생의 수준을 진단하는 온라인 형성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나무다리 건너는 '동심' 20일 광주시 북구 동심동 영산강대상근린공원 구산지구 유아숲체험원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장애학생 특수교육 강화” 장석웅 교육감 밝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들의 주체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특수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목포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한 명의 장애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하더라도 희망의 불빛이 있는 한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진정한 장애란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일회성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의 동행으로 지속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길을 걸으며, 같이 희망의 길을 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 1층 갤러리 이음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특수교육 대상자 작품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남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만든 미술작품 총 100점이 전시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4차산업 3학기제 평생대학 광주 남구, 27일~11월

광주 남구는 실생활 밀접 분야부터 미래를 대비한 전문 분야까지 다양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학기제 평생대학'을 선보인다. 개인별 학습 이력 관리를 통해 학기를 마친 주민에게는 명예 학위 등도 수여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학습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늘 배움터 남구 평생대학이 오는 27일부터 11월말까지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봄, 여름, 가을 3학기제로, 미래학과를 비롯해 인문학, 웰빙학과, 생활학과 등 4개 학과제로 구성됐다.

또 학과 과목 이수자 가운데 특별 강의를 듣고자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계절학기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학기별 커리큘럼은 2~3개 과목이며, 1년에 2개 과목 또는 34시간 이상을 수료할 경우 명예 학위가 수여된다.

봄 학기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운영 과목은 미래학과와 웰빙학과 2과목으로, '드론해서 기초 입문과정'과 '싱그러운 실내생활 원에 가드닝' 교육을 받게 된다.

이밖에 여름학기는 오는 7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가을학기는 10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각각 2개월씩 운영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18 주먹밥 아주머니들 '주먹밥 행사 보이콧' 왜?

양동시장 '주먹밥 조형물'에 '노점상인' 문구 빠져 서운함 드러내

5·18민주화운동 당시 양동시장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들과 나눠준 아주머니들이 올해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기로 했던 나눔행사를 보이콧하고 나섰다.

20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월 16일 광주시 서구 양동 동사무소에서 주먹밥 나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 행사에는 41년 전 양동시장에서 주먹밥을 만든 당사자들이 참가해 '원조 주먹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행사는 이를 위해 1980년 당시 직접 쌀을 가

져와 길바닥에 솥을 내걸고 밥을 지어 시민군에게 나눠줬던 당시 양동시장 노점상인을 찾아 나섰다. 8명의 당시 아주머니와 연락이 닿았다.

이들 중 입원 중인 2명을 제외한 6명을 행사에 초청하기로 했지만, 그들이 '못하겠다'며 돌아섰다.

그들의 반발 이유는 지난해 5월 양동시장에 세워진 주먹밥 조형물(사진) 속 문구 때문이다. '80년 광주 양동전통시장 상인들은 시민군들에게 주먹밥과 생필품을 나눠주었다'는 문구 중간에 '노점상인'을 추가해 달라는 입장이다. 노점상인

라는 어려운 형편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주먹밥을 만든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바람이라고 아주머니들은 입을 모았다.

문구 수정 요구는 조형물이 건립된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있어왔지만, 주먹밥나눔 재현 행사를 앞두고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5·18행사위는 아주머니들의 서운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조형물은 건립한 서구청 산하 상공관리기구와 협의 중인 상태다.

상공관리기구 관계자는 “편시리 문구를 수정하면 조형물에 생채기가 날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며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69 광안99주년 광주일보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water 한국수자원공사